

직장인을 위한 찾아가는 ‘디지털 윤리 교육’ 본격 추진

- 직장인 점심시간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제공
- 현재 30여 곳 신청 받아 6월말부터 진행, 추가 신청도 계속 접수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이하 방통위)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중성, 이하 NIA)과 함께 6월부터 직장인 대상 디지털윤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디지털 역기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2009년부터 유아, 청소년, 성인, 고령층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계층별 맞춤형 디지털윤리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5월에 발표된 ‘2022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9.6%로 청소년(41.6%)에 비해 낮은 수치이나 성인의 경우에도 사이버폭력을 재미나 장난으로 인식(39.2%)하는 등 사이버폭력에 대한 심각성과 죄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성인의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경험률(10.4%)은 청소년(88.7%)에 비해 현저히 낮은 반면, 성인 10명 중 8명 이상(86.4%)은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을 경험한 인원 중 91.8%가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함에 따라 성인 중 직장인 대상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직장인 대상 디지털윤리 교육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혐오 표현, 디지털성범죄, 허위조작정보 등 디지털 역기능 관련 이슈를 다루고,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교육은 6월 30일부터 본격 추진되며, 바쁜 직장인의 점심시간을 활용한 교육 등으로 직장인의 교육 거부감을 낮추고 쉽고 편안하게 디지털윤리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네이버(주), (주)클라우드웍스, (주)필인, 테라젠바이오 등 대·중소·벤처기업 30여 곳의 임직원이 신청하였으며, 추가로 교육을 희망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디지털윤리 누리집(디지털윤리.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제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기본 소양이 되었다.” 며, “이번 디지털윤리 교육이 직장인들의 디지털윤리 의식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방통위는 앞으로도 디지털윤리 교육이 필요한 신규 교육대상 발굴에 힘쓰겠다.” 고 밝혔다.

붙임 : 직장인을 위한 디지털윤리 교육 안내문. 끝.

담당 부서	이용자정책국	책임자	과 장	최윤정 (02-2110-1520)
	인터넷이용자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전혜정 (02-2110-1522)

직장인의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을 위한
디지털 역기능 대응법 궁금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직장인이 알아야 할 디지털윤리

디지털 혐오표현, 디지털성범죄, 언어폭력 등
다양한 디지털 역기능 이슈를 다루며, 생성형 AI를 시작으로
중요하게 고려되는 인공지능윤리에 대한 교육도 진행됩니다.

- 일정** 6월 ~ 12월 (상시 모집)
- 대상**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재직중인 직장인
- 방식** 기관별 맞춤형 대면교육
(교육주제, 시간 등은 기관의 수요에 맞게 조정)
- 신청** 디지털윤리.kr > 교육신청
- 문의** 카카오톡채널 > 디지털윤리 교육

